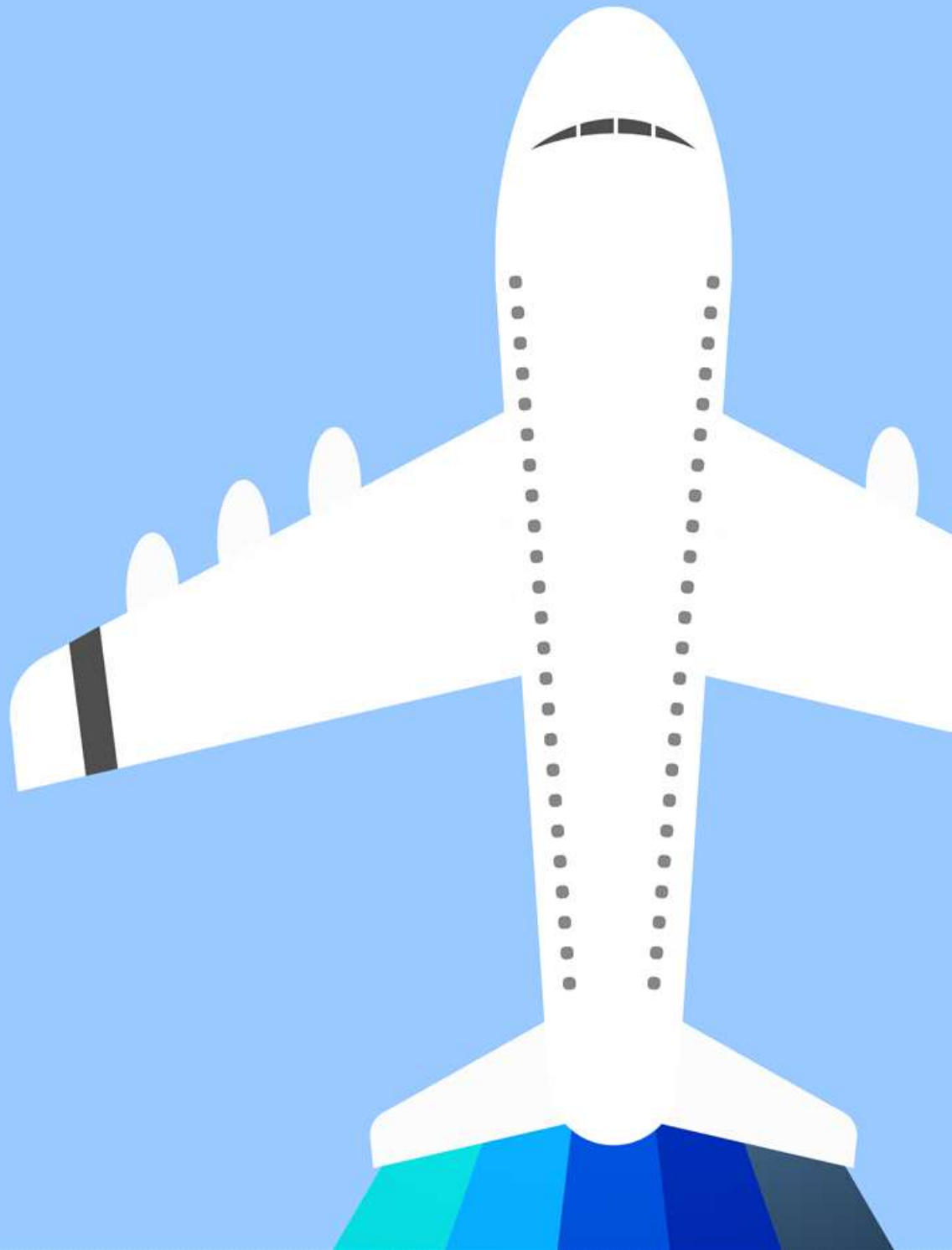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 에콰도르

## 키토

*QUITO*



## 목 차

I. 에콰도르 개황 .....	01
II. 에콰도르 경제 및 교역동향 .....	04
III. 에콰도르 무역현황 .....	09
IV. 에콰도르 투자동향 .....	15
V. 한.에콰도르 무역동향 .....	17
VI.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	21
VII. 현지 주요연락처 및 무역관 안내	31

# I. 에콰도르 개황



자료원: CIA

## 1. 국가개요

국 명	<p><b>에콰도르</b>                  ▷ 영어명: Republic of Ecuador/현지어: República del Ecuador</p>
건국(독립)일	<p><b>1830년 5월 13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b></p>
국가원수	<p>▷ <b>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b>                  - 취임일 : 2025년 5월 24일</p>
수 도	<p><b>키토(Quito)</b>                  ▷ 고도 2,850m, 북부 산악지대</p>
위치 및 면적	<p>▷ <b>위치:</b> 남아메리카 서북부, 북쪽은 콜롬비아, 동/남쪽은 페루와 접경                  ▷ <b>면적: 283,561km<sup>2</sup>, 한반도의 약 1.3배</b>[※남북간 725km, 동서간 640km]                  - 갈라파고스 군도 지역, 서부 해안(Costa), 중부 산악(Sierra), 동부 아마존(Oriente)</p>
인구 및 언어	<p>▷ 18,104,000명 (2025년 4월 기준, IMF)                  ▷ 스페인어(공용어) 및 11개 부족어 (케추아, 슈아르 등)</p>
종 교	<p>가톨릭(약 90%이상)</p>
민 족	<p>메스티조(62%), 유럽계(7%), 원주민(25%), 흑인(3%), 기타(3%)</p>
정부형태	<p>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1회 연임가능), 단원제(의회임기 4년)</p>

## 2. 주요 경제지표

연도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4.2	2.9	1.5	-2.5
명목GDP (십억\$)	106.16	115.04	120.2	118.2
1인당 GDP (PPP, \$)	11,747.78	11,619.63	11,720.37	14,485
1인당 명목 GDP (\$)	5,978.91	6,395	6,581	6,515.7
정부부채(% of GDP)	59	53.21	54.6	56
물가상승률 (%)	1.9	3.7	2.2	1.6
실업률 (%)	4.2	4.4	3.7	3.8
수출액 (백만\$)	26,280	32,655	31,126	34,420
수입액 (백만\$)	25,725	33,048	30,895	29,490
무역수지 (백만\$)	555	-393	231	4,930
외환 보유고 (백만\$)	7,897	8,459	4,454	6,900
이자율 (%)	8.68	8.4	10.34	8.54
환율 (자국통화)	1	1	1	1

\* : 2025년 경제성장률 1.7% 예상 (IMF 2025.4.22. 발표 자료)

자료: IMF, 세계은행, GTA, 에콰도르 중앙은행, 재무부

## II. 에콰도르 경제 동향과 전망

### 1. 최근 에콰도르 경제 동향

#### □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 2025년 에콰도르 경제는 2024년의 경기 침체를 딛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 IMF와 세계은행(WB)은 에콰도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을 -2.5%로 발표,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각각 1.7%와 1.9%로 전망
  - 에콰도르 중앙은행(BCE)은 2024년 경제성장률 -2%로 경기 위축 후 2025년 2.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24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전력 부족, 범죄 증가, 부가세 인상, 정치적 불확실성(2025년 2월 대선)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에콰도르는 2024년 하루 최대 14시간에 이르는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
  - 이는 민간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생산 감소
  - 2024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12%→15%), 외화유출세(3.5%→5%)를 인상하는 등 국가 재정 건전화 조치로 내수경제가 다소 위축됨
- 2025년 경제 회복의 주요 요인
  - 에콰도르 농수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음
  - 2025년 강수량 증가로 수력 발전이 회복되며 에너지 공급 안정화
  - 2025년 4월 대선 결선투표에서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 이는 소비자 및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어 환율 위험이 없고, 2003년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한 번도 10%를 넘은 적이 없음
  -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2.2%, 2024년에는 1.6%를 기록함
  - 하지만 같은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에 비해 에콰도르는 생산원가 상승, 높은 수입 관세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체감 물가가 비싼 편임

## □ 시장 개방 기초

- 2025년 5월 취임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최연소 대통령으로 기업가 출신이며 기에르모 라소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방 기초를 이어가고 있음
  - 2021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노보아 대통령은 전임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의 하야로, 2023년 11월에 잔여임기가 18개월(2025년 5월까지)인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바 있음
  - 2025년 2월 9일 대선 1차 투표에서 다니엘 노보아 후보는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와 근소한 표차(0.2%)로 승리
  - 2025년 4월 13일 2차 결선 투표 시 현 대통령인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56%를 득표하면서 재선에 성공함
  - 2025년 5월 14일 신국회가 개원하고, 2025년 5월 24일 신정부가 출범함
- 현 정부는 에콰도르가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여겨 이를 위해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음
  - 2024년 5월에는 에콰도르-중국 간 FTA 정식 발효
  - 2024년 10월에는 에콰도르-코스타리카와의 FTA 정식 발효
  - 미국, 캐나다, 일본, 아랍에미리트(UAE)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임
- 에콰도르와 한국은 2023년 10월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및 가서명
  - 2025년 5월 기준 한국 법제처 심사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중 발효 기대
  - 2025년 하반기 중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에콰도르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 노동시장

- 에콰도르 노동시장의 경우 2024년 정규직 고용률 36.3%, 불완전 고용률 20.5%, 실업률 3.8% 기록
  - 에콰도르 경제활동인구는 870만 명이지만, 정규 고용자는 300만 명에 불과
- 2024년 8월 설문 조사기관 Ipsos의 자료에 따르면 에콰도르 국민의 74%가 고용 문제에 우려를 표함

- 에콰도르통계청(INEC) 2025년 1분기 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와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으로 집계
  - 에콰도르 노동시장의 문제는 취업 가능 인구(1,325만 명)의 약 40%인 517만 명이 불완전 고용 상태인 점임
  - 15~65세 사이 근무 가능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없는 인구는 470만 명에 달함
- 주요 고용 창출 부문
    -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7.8%)이 민간 부문으로 영세, 중소, 중견 또는 대기업에 속하며, 자영업자(23.3%), 공공부문(18.9%) 순임
  - 에콰도르 근로자 평균 임금
    - 공공부문의 경우 1,312달러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는 920.4달러, 민간 부문 근로자는 781.4달러임
    - 즉, 공무원이 민간 기업 근로자보다 평균 임금이 68% 높음
  - 지역별 실업률 및 적정 고용률
    - 에스메랄다스, 피친차, 임바부라 3개가 에콰도르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24년 12월 기준 6.27%에서 8.63% 사이를 기록함
    - 수도 키토가 속한 피친차 주는 주민의 51.21%가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갈라파고스(51.14%)와 엘오로(43.12%)가 그 뒤를 이음
    - 불완전 고용률은 산타엘레나(31.71%), 마나비(27.26%), 과야스 주(25.9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국가위험도

- 2025년 4월 말 에콰도르 국가위험도는 1,189포인트를 기록
  - 2025년 3월 말 1,630포인트에서 441포인트 하락한 수치
  -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산출하는 국가위험도 지수(EMBI, Emerging Markets Bonds Index)는 한 국가의 대외 채무 상황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
  - 즉, 한 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외채)을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지표로서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위험도 지수가 높아짐

- 2025년 4월 초 에콰도르 국가위험도 고점 기록 후 대선 이후 하락
  - 대선 결선투표 3일 전인 4월 10일 1,908포인트로 최고점 기록
  - 에콰도르는 국가 세수입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하락한 점도 국가위험도 상승 요인
  - 노보아 대통령 재선 성공 후 국가위험도 지수는 4월 11일 종가인 1,844p에서 562p 하락해 4월 14일 1,282포인트를 기록

## 2. 향후 에콰도르 경제 전망

### □ 주요 국제금융기관 및 에콰도르 중앙은행

- 에콰도르 중앙은행(BCE)은 2024년 에콰도르 경기 위축 후 2025년 2.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2025년 3월 23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에콰도르가 2025년에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이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 에콰도르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IMF는 1.7%(2025.4.22 발표), FLAR(라틴 아메리카준비기금)은 1.6%(2024.12.13 발표), Cepal(UN산하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는 1.4%(2024.12.18 발표)로 발표
  - 2025년 에콰도르 실업률은 4%, 2026년 에콰도르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
  -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부장은 세계 석유 수요 감소로 인해 2025년 석유 가격 지속 하락 예상, 에콰도르는 원유가 주요 수출품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WB)
  - 세계은행(WB)은 2025년에는 에너지 공급 안정화와 정치적 안정성 향상으로 에콰도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은 1.9%(2025.4.10 발표)로, 중남미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3.5%였던 재정 적자는 2025년 2.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점진적인 재정 통합을 통해 2027년까지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2024년 GDP 대비 56%였던 공공 부채는 2026년 57.8%로 정점에 도달한 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에콰도르는 2024년 5월 IMF와 4년간 40억 달러 규모의 확장기금협정 (EFF)을 체결, 재정 안정성과 구조 개혁 추진에 기여하고 있음

- 에콰도르 경제 회복의 주요 리스크로는 국제 유가 변동성, 미국 및 중국의 경기 둔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치안 악화 등이 지적됨

## □ 현지 언론 및 경제전문가

- 현지 일간지들은 국제금융기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2024년 2%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25년에는 반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치안 불안, 전력 위기 등으로 인한 지속적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음
-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음
  - 중장기적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선 구조 조정과 생산, 금융, 치안, 투자 환경 부문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
  - 특히 2025년 재정 적자가 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IMF 구제금융 이외의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 달러화 사용으로 인해 통화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
- 2025년 실업률은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비공식 고용 비중이 58%로 높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31.8%였던 빈곤율은 2025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는 노동 소득 감소와 비정규 고용 증가에 기인함

### Ⅲ. 에콰도르 무역 현황

#### 1. 에콰도르 수출입 동향

##### □ 개요 및 동향

- 에콰도르는 원유, 바나나, 새우, 금, 카카오 등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며, 세계 원자재 시장 변동성과 국제 수요에 민감한 무역 구조
  -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
  - 2024년 에콰도르 총교역액은 6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성장함
  - 수출은 344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으며, 수입은 294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
  - 무역수지는 2022년 3억 9,300만 달러 적자 이후 2023년 2억 3,100만 달러, 2024년에는 49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됨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US\$/백만,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출	26,280 (+30.25)	32,655 (+24.25)	31,126 (-4.68)	34,420 (+10.6)
수입	25,725 (+46.70)	33,048 (+28.47)	30,895 (-6.52)	29,490 (-4.6)
무역수지	555	-393	231	4,930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5.5.9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국가별 수출 현황

-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2024년 기준 69억 7,400만 달러로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20.3%를 차지
  - 파나마(18.3%), 중국(14.8%), 네덜란드(3.3%), 페루(3.2%)가 그 뒤를 이음
  - 한국은 2024년 기준 1억 4,200만 달러로 에콰도르의 30위 수출국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3년)>

(단위: US\$/백만)

구분	2022		2023		2024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미국	8,980	미국	7,351	미국	6,975
2	중국	5,810	중국	5,673	파나마	6,286
3	파나마	4,575	파나마	4,473	중국	5,090
4	칠레	1,289	칠레	978	네덜란드	1,134
5	콜롬비아	976	페루	975	페루	1,109
6	스페인	946	러시아	924	스페인	1,010
7	페루	936	스페인	854	칠레	948
8	러시아	928	네덜란드	853	러시아	898
9	네덜란드	666	콜롬비아	776	콜롬비아	850
10	이탈리아	557	이탈리아	629	독일	78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5.5.21

□ 국가별 수입 현황

- 에콰도르의 최대 수입국도 미국이며, 2024년 기준 81억 달러로 에콰도르 전체 수입의 27.5%를 차지
  - 그 다음이 중국(22.4%), 콜롬비아(7.3%), 브라질(3.5%), 페루(3.3%) 순임
  - 최근 5년간 미국과 중국이 항상 상위 2위권에 있으며,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들과도 활발한 무역을 이어오고 있음
  - 한국은 2024년 기준 8억 달러로 에콰도르의 수입국 중 상위 7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입의 2.7%를 기록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3년)>

(단위: US\$/백만)

구분	2022		2023		2024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1	미국	8,549	미국	8,265	미국	8,107
2	중국	7,280	중국	6,401	중국	6,607
3	콜롬비아	2,055	콜롬비아	2,288	콜롬비아	2,162
4	브라질	1,328	브라질	1,232	브라질	1,040
5	한국	1,216	페루	1,072	페루	959
6	페루	1,167	한국	854	이탈리아	848
7	캐나다	854	이탈리아	819	한국	801
8	멕시코	823	일본	778	아르헨티나	773
9	아르헨티나	816	스페인	742	스페인	673
10	스페인	796	멕시코	738	캐나다	642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5.5.21

- 에콰도르 정부는 이미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 등은 무관세나 5% 정도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고관세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FTA 체결국에만 관세 인하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2. 품목별 에콰도르 수출입 동향

### □ 품목별 수출 현황

-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에콰도르의 10대 주요 수출 품목은 원유, 냉동

- 새우, 바나나, 코코아, 생선 가공품, 금, 꽃 등 1차 산품이 주를 이룸
  - 이들 품목은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다변화 수준은 낮은 편
- 에콰도르의 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은 전통적인 1차 산업 기반 품목이 중심을 이루며, 전체 수출액은 약 3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
  - 2024년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원유(HS코드 27)로, 전체 수출의 2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함
  - 이는 국제 유가의 일부 회복과 물량 증가에 기인함
  - 냉동 새우 및 수산물(HS 03)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21.4%)을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2.3% 기록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됨
- 주목할 만한 점은 카카오(HS 18)의 수출이 전년 대비 174% 급증하며 수출 4위 품목으로 부상했다는 점임
  - 이는 글로벌 공급 위기와 고급 초콜릿 수요 확대에 따른 단가 상승에 기인하며, 에콰도르산 코코아의 품질 경쟁력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됨
- 그 외에도, 구리 및 정광(HS 26), 가공 수산물(HS 16), 화훼류(HS 06), 목재(HS 44), 채소 및 뿌리류(HS 07) 등의 전통적인 수출 품목이 상위권을 유지
  - 대부분이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 기계·전자 부품(HS 84, 85), 의약품(HS 30), 화장품·비누류(HS 34) 등 공산품의 비중은 여전히 낮지만,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 다변화를 위한 기초로 볼 수 있음
  - 2024년의 또 다른 특징은 비료(HS 31), 도자기(HS 69), 플라스틱 제품(HS 39) 등 일부 품목의 수출 감소로, 이는 내수 수급 부족과 일부 품목의 경쟁력 약화로 해석됨
- 전체적으로, 2024년 수출은 원자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코코아·가공식품·금 등의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최근 추세에 따르면, 2025년에는 원유 가격 하락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카카오와 금은 글로벌 공급 불안과 안전자산 선호에 힘입어 주요 수출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 높음

<상위 10개 에콰도르 수출 품목(최근 3년)>

(단위: US\$/백만,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2	2023	2024	증감률 ('24/'23)
1	27	석유와 역청유(원유)	11,585	8,984	9,570	6.53
2	03	어패류	7,707	7,525	7,354	-2.28
3	08	과실 및 견과류	3,549	4,113	4,268	3.76
4	18	카카오	1,003	1,320	3,617	174.03
5	26	구리 및 정광	1,941	1,926	2,039	5.89
6	16	가공·저장생선	1,366	1,327	1,722	25.48
7	71	금	857	1,425	1,066	-25.16
8	06	절화와꽃봉오리	977	1,008	1,040	3.17
9	44	목재 및 목탄	580	533	581	8.90
10	07	채소	261	310	340	9.82
총계			32,655	31,126	34,420	10.58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2025.4.2

□ 품목별 에콰도르 수입 현황

- 2019년~2023년간 에콰도르의 수입은 소비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정제유, 차량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전자기기, 곡물 등
- 2024년 에콰도르의 총수입액은 약 294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 감소함
  - 이는 내수 수요 감소, 통화 유동성 제약, 고금리 기조, 일부 비필수재 수입 억제 정책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됨
- 가장 큰 수입 품목은 정제유(HS 27)로,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하며 수입 구조의 에너지 의존도를 여실히 드러냄
  - 기계류(HS 84)와 전기·전자기기(HS 85)도 각각 10.4%, 7.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 3위를 유지함
  - 특히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전년 대비 10.2% 증가해, 태양광·에너지·통신 장비 수요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차량 및 부품(HS 87)은 전년 대비 -24.6% 급감하며 수입 4위로 하락
  - 이는 2024년 에콰도르 자동차 총판매량(10만 8,266대)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과 수입대체 효과, 그리고 중고차 수입 제한 등의 정책 요인에 기인
  - 플라스틱(HS 39), 의약품(HS 30), 철강(HS 72), 비료(HS 31) 등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 감소세가 관측됨
  - 고무 제품(HS 40), 유기화학제품(HS 29), 화장품(HS 33), 가공식품(HS 21) 등의 생활 소비재류는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소폭 등락을 나타냄
  - 주목할 변화로는 기타 특수 분류품(HS 98)이 전년 대비 47.3% 증가하며 수입 점유율 1.79%로 급등한 점이 있으며, 이는 일회성 고가 장비나 프로젝트 장비 수입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에콰도르는 전체적으로 정제유, 기계, 식품, 의료, 화학제품 등 기초생산과 소비재 중심 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점차 에너지 전환과 기술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 기술 품목의 비중이 소폭 확대되고 있음

<상위 10개 에콰도르 수입 품목(최근 3년)>

(단위: US\$/백만,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2	2023	2024	증감률 (24/23)
1	27	정제유	8,047	7,455	7,376	-1.06
2	84	보일러 및 기계류	3,111	3,102	3,079	-0.73
3	85	전기기기·TV·VTR	2,085	2,067	2,277	10.15
4	87	일반차량	2,775	2,790	2,104	-24.58
5	23	조제 사료	1,637	1,614	1,367	-15.31
6	39	플라스틱과 그제품	1,606	1,190	1,211	1.74
7	30	의약품	1,299	1,332	1,189	-10.71
8	72	철강	1,059	912	703	-22.98
9	38	화학공업 생산품	666	612	649	6.11
10	10	곡물	762	664	596	-10.24
총계			33,048	30,895	29,490	-4.55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2025.4.2

## IV. 에콰도르 투자 동향

### 1. 투자 동향

- 에콰도르 중앙은행(BCE)에 따르면 2024년 에콰도르의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은 2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급감했으며, 최근 14년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
  - 2023년부터 시작된 대통령 탄핵, 국회 해산, 범죄와의 전쟁, 전력난 등 에콰도르 정치 사회 불안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 금리 상승 등 민간 투자 저해에 기인
- EIU country report의 추정치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운영과 에너지 부문의 국영화 정책 등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최근 5개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US\$/백만, Net Flow)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1,095	648	879	372	-

자료: UNCTAD Stat, 2025.4

- 산업별로는 광업 분야에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에콰도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농업, 수산업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건비가 인근 중남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산업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 제조업에의 투자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

### 2. 한국의 투자 동향

- 198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대에콰도르 투자진출 관련 누적 신고 건수는 221건이며, 투자 금액은 1억 3,300만 달러로 집계됨(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2022년 122만 달러, 2023년 15만 달러, 2024년에는 2만 달러의 신고액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업종별 한국 투자 동향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업종대분류	신고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송금수	투자금액
2020	제조업	0	0	0	2	32
2021	-	0	0	0	0	0
2022	건설업	3	1	1,050	2	1,048
	도매 및 소매업	1	1	50	2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0	118	0	0
2023	건설업	1	0	148	1	148
	도매 및 소매업	1	0	0	0	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	1	2	1	2
2024	제조업	1	0	20	1	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25년 4월 기준

- 한국기업의 에콰도르 진출은 1976년 대우건설의 에콰도르 키토 도로공사 수주로 시작됨
  - 2006년부터 EDCF 자금 지원으로 산토도밍고시 상수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하수도 사업까지 확장되어, 2025년 기준 한솔EME, 건화 등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09년에는 SK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을 수주했고, 2013년까지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 추가로 총 4단계 사업을 진행함
  - 2016년 LS산전은 IDB 재원으로 진행된 포르토비에호 230kv 변전소 건설 EPC 사업을 수주함
  - 2024년 11월 한국도로공사는 에콰도르 민관협력처(SIPP, Secretaria de Inversiones Publico Privadas)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약 183만 달러 규모의 '과야킬-쿠엔카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273km)' 사업 수주
  
- 2025년 기준 삼성전자, LG전자, 한솔EME, 건화 등 4개사가 진출해 있음
  - 삼성전자(키토): 2001년 10월 지사 설립
  - LG전자(과야킬): 2002년 2월 지사 설립
  - 한솔EME(산토도밍고): 2011년 11월부터 산토도밍고시 상·하수도 확장 EDCF 사업 시행
  - 건화(산토도밍고): 2013년 3월부터 산토도밍고시 상·하수도 확장 EDCF 사업 컨설팅 시행

## V. 한 · 에콰도르 무역 동향

### 1. 한국과의 수출입

#### □ 개요 및 동향

- 한국과 에콰도르의 교역 규모는 2022년 9억 8,100만 달러 → 2023년 9억 6,500만 달러 → 2024년 8억 200만 달러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기준 한국은 에콰도르의 15위 무역국, 7위 수입국, 30위 수출국
- 한국은 에콰도르와의 교역에서 매년 2~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20~2024 한-에콰도르 교역 동향 >

(단위 : US\$/백만)

구분	수출	수입	수지
2020	377	91	286
2021	762	207	555
2022	771	210	561
2023	769	196	573
2024	517	285	232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025년 4월 기준

#### □ 한국의 對 주재국 교역 현황

- 2024년 기준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2.8% 감소했는데, 특히 정제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
- 이외 2025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및 사회 불안, 2024년 4월 부가가치세 및 외화유출세 인상, 2024년 7월 연료 보조금 철폐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소비 감소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 5월에는 에콰도르와 중국과의 FTA가 정식 발효돼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도 원인으로 꼽힘
- 2024년 기준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5.3% 증가함
- 최근 2년간(2023~2024년) 한국의 에콰도르산 원유, 새우, 과실류 품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이는 한국 정부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의 관세 완화 정책으로 에콰도르산 바나나 등이 큰 수혜를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對에콰도르 무역수지는 2023년 5억 7,300만 달러에서 2024년 2억 3,200만 달러로 -16.9% 감소
  - 한국은 여전히 최근 5년간 2~5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과 에콰도르는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역 잠재력이 큼
  - 한국은 에콰도르로 경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학원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원유, 새우, 바나나, 카카오 등 1차 산업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함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출품은 2024년 기준 경유 및 석유류 제품(1억 6,000만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함
  - 이외 원동기(1억 달러), 자동차 및 부품(4,000만 달러), 합성수지(3,000만 달러), 기타 플라스틱 제품(2,000만 달러) 순
  -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32.8% 하락함
  - 2024년 5월 에콰도르와 중국과의 FTA 발효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에콰도르 내수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백만, %)

순 위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1332	경유	355	46	164	32
2	7111	원동기	33	4	102	20
3	7420	자동차부품	46	6	38	7
4	2140	합성수지	40	5	33	6
5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3	2	20	4
6	7251	건설중장비	20	3	17	3
7	2262	의약품	21	3	17	3

8	1336	윤활유	19	2	13	3
9	6132	열연강판	31	4	11	2
10	7411	승용차	42	5	10	2
		10대 품목 합	620	81	425	82
		전체	769		517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025년 4월 기준

주: MTI 4단위 기준

○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에콰도르 주요 수입품은 2024년 기준 원유(1억 7,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0%를 차지함
- 바나나(4,000만 달러)는 그간 최대 수입품이었던 새우(2,000만 달러)를 제치고 수입액이 3배 가까이 폭증하며 2024년 제1의 수입품목(원유 제외)으로 부상함
- 한국이 물가상승억제 대책으로 2025년 바나나 등 수입과일 일정물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30%)를 철폐하고, 가장 큰 경쟁국인 필리핀산 바나나 전염병(TR4)으로 에콰도르산 바나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음
- 향후 한국과 에콰도르간 SECA가 정식 발효되면 바나나 기존 관세(30%)에서 매년 6%씩 점진적으로 인하돼 5년 뒤 철폐될 예정

<한국의 對에콰도르 상위 10개 수입 품목>

(단위 : US\$/백만, %)

순위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3		202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1310	원유	125	64	172	60
2	0116	과실류	13	7	40	14
3	0421	새우	29	15	20	7
4	6221	동괴및스크랩	21	11	20	7
5	1111	금	0	0	11	4
6	0125	견과류	0	0	10	4
7	1190	기타금속광물	1	1	2	1
8	1130	동광	0	0	2	1
9	0413	갈치	3	2	2	1
1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	1	1	0
		10대 품목 합	193	98	280	99
		전체	196		28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2025년 4월 기준

주: MTI 4단위 기준

- 향후 한-에 SECA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무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양국 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2.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 한-에콰도르 통상협정 추진

- 2016년 4월, 에콰도르와 한국 간의 통상협정을 개시하였으며, 동 협정은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양국 간 기술 및 지식 교류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음
- 2023년 10월 11일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국회 동의 및 협정 발효 절차 남은 상황임
-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며 한국산 자동차 부품과 함께 건설중장비, 화장품, 의약품, 라면, 김 등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 한-에콰도르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

-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 규모는 9억 6,000만 달러('23년 기준)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공산품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1차 산업 생산품으로 양측은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협정 발효 시 양국 간 교역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SECA 체결 시 새우, 카카오, 바나나, 생선류, 유제품 등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을 포함한 현재 에콰도르 수출 가능 품목의 98%가 관세 혜택을 받아 세계 12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피타하야(용과)나 망고, 파인애플과 같은 새로운 품목들의 수출도 기대되고 있음.

## VI.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 에콰도르의 수도는 키토이지만 인구 및 경제 규모상 최대 도시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 과야킬이며, 주로 이 두 지역에 한국 출장자들이 많음

### □ 과야킬 호텔 정보

호텔명	연락처	1박당 요금 (세금 제외, 달러)	비고
Hotel del Parque	04-372-5260	\$359	5성급
Wyndham Guayaquil Puerto Santa Ana	04-371-7800	\$100	5성급
Sheraton Guayaquil	04-232-7100	\$111	5성급
Hilton Colon Guayaquil	1800-445-8667	\$116	5성급
River Garden Hotel +Suites	04-501-5888	\$163.76	4성급
Oro Verde Guayaquil	04-381-1000	\$100	4성급
Courtyard By Marriott Guayaquil	04-600-9200	\$93	4성급
Holiday Inn Guayaquil Airport	04-371-4610	\$123	3성급
Wyndham Garden	04-371-3690	\$102	3성급

\* 호텔비용에 부가가치세 15%+서비스비용 10%가 추가로 부가되니 참고바람

### □ 키토 호텔 정보

호텔명	연락처	1박당 요금 (세금 제외, 달러)	비고
Go Quito Hotel	099-920-0900	\$199	5성급
Hotel JW Marriott Quito	02-297-2000	\$210	5성급
Hotel Sheraton	02-297-9200	\$222	5성급
Le Parc Hotel	02-227-6800	\$129	5성급

Dann Carlton Quito	02-397-2600	\$138	5성급
Whyndham Garden Quito	02-226-5265	\$96	4성급
La Quinta By Whyndham	02-244-5305	\$99	4성급
NH collection Quito Royal	02-223-3333	\$139.75	4성급
Hampton By Hilton	02-600-4500	\$77	3성급

\* 호텔비용에 부가가치세 15%+서비스비용 10%가 추가로 부가되니 참고 바람

\*\* Go Quito Hotel과 Le Parc Hotel은 KOTRA로 예약 시 특별 할인 적용 가능

### □ 과야킬 식당 정보

식당명	연락처	판매 음식 종류	비고
Momo	098-281-1119	한식	San Marino Shopping 앞
Dawa	099-319-8876	한식	
Songa Food	093-997-0755	한식	
Roll And Roll	099-473-8601	분식	
Sion Lung	04-454-9319	중식	
El Patio	04-381-1000	라틴, 스페인, 에콰도르 등 세계 각국	Hotel Oro Verde내
Casa Juliàn	098-645-3037	에콰도르	채식 및 비건 옵션 가능
Rìo Grande	04-371-7800	라틴, 세계각국, 남미	Hotel Wyndham내
La Riviera	098-472-6340	이탈리아, 해산물, 지중해	
El Corte	098-720-8379	스테이크, 그릴	
Golden Prague Pub and Restaurant Urdesa	098-747-9878	패스트푸드, 스테이크, 수제맥주	
Negroni Guayaquil	099-811-6303	고급 일식 레스토랑	Puerto Santa Ana 근처

□ 키토 식당 정보

식당명	연락처	판매 음식 종류	비고
본가(Bon Ga)	02-224-6893	한식	
소반(Soban)	02-290-1828	한식	
고향집(Ko Hyang Jip)	096-761-7640	한식	
테이스티 (Tasty Cumbaya)	095-899-8863	한식, 분식	꿈바야 지역 Plaza Pampite 내
Negroni Quito	096-251-8595	고급 일식 레스토랑	Quicentro 쇼핑몰 내
Zerdo	02-323-7562	현지식 레스토랑	
Omnia Ecuador	099-990-7965	중식, 일식, 아시아 음식	
Kriollo por Ikaro	098-945-4697	정통 에콰도르 고급요리	
Miskay	09-8794-6373	에콰도르	채식 및 글루텐프 리 옵션 가능
Zazu	02-254-3559	라틴, 해산물, 세계 각국, 건강식	채식 및 비건 옵션 가능
Carminé	02-333-2829	이탈리아, 세계 각국, 지중해	채식 및 비건 옵션 가능
De la Llama	09-8909-5312	라틴, 에콰도르, 퓨전	
Z food Pescadería	02-223-6425	해산물, 라틴, 남미	

□ 공항

- 키토 및 과야킬 공항 모두 깔끔한 편이나 규모는 작은 편임
  - 공항 내 짐 이동을 위해 카트를 사용하려면 현금 2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이용 가능함

□ 교통

- 택시
  -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따라 계산되지만 평균거리 운행 시 1.5~2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며, 야간에는 2~3달러로 UBER나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 키토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됨

- UBER 사용 시 한국번호로는 우버 어플리케이션 다운이 불가능할 수 있어, 현지 휴대폰 번호로 앱을 설치하는 것을 추천함

○ 시외버스

- 버스는 에콰도르 내 여행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 교통수단이며, 요금은 거리와 버스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르고 급행버스는 중간 정류장 없이 바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화장실, TV, 뒤로 젖혀지는 의자, 간식 등 최신설비를 갖춘 버스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
- 각 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다수의 목적지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있으며 일부 행선지의 경우 별도의 터미널을 갖춘 경우도 있음
- 버스 탑승 시 특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야 함

○ 도시철도

- 2023년 12월 1일 최초의 도시철도 키토 메트로가 개통되었으며, 길이는 22km, 15개 역으로 키토시를 남북으로 종단함
- 이 중 산프란시스코 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키토 역사 중심지 내에 있음
- 안전을 이유로 역내 CCTV 설치, 경찰이 배치되며 화장실도 없고 주취자는 탑승이 금지됨
- 교통카드를 구매 후 충전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키토 메트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충전 후 탑승 가능함
- 요금은 일반인은 0.45달러, 5~17세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0.22달러, 장애인 0.1달러임
-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배차 시간은 8분임

□ 사증

-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등의 단순 체류 목적이면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외교관 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근무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함
- 입국일 기준 1년간 90일 부여(누적), 중간에 외국에 출국 후 다시 에콰도르 입국하는 경우 새로 90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님
- 참고로, 일반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 중 1회에 한해 에콰도르 이민청에 연장 신청시 90일까지 추가 체류 가능함

## □ 전화

- 전화: 국가코드 593 + 지역코드 + 전화번호
  - 22개 주 별 코드 : Azuay(07), Bolivar(03), Carchi(06), Canar(07), Chimborazo(03), Cotopaxi(03), El Oro(07), Esmeraldas(06), Galapagos(05), Guayas(04), Imbabura(06), Loja(07), Los Rios(05), Manabi(05), Morona(07), Napo(06), Orellana(06), Pastaza(03), Pichincha(02), Sucumbios(06), Tungurahua(03), Zamora(07)
  - 국외에서 에콰도르로 전화할 때는 지역코드 맨 앞의 0은 생략함  
예) 피친차주(02)의 450-4002로 전화할 경우: +593 2 4504002를 누름  
예) 휴대폰 099-123-4567로 전화할 경우: +593 9-9123-4567을 누름
  - 에콰도르내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상관없이 09로 시작함

## □ 화폐 및 외환 소지 관련 유의 사항

- 현재 에콰도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미국의 달러화로 지난 2000년에 미국 달러화를 자국 통화로 하는 달러화를 단행함
  - 지폐는 100달러권, 50달러권, 20달러권, 10달러권, 5달러권, 1달러권이 있으며 동전으로 1달러, 50센트, 25센트, 10센트, 5센트, 1센트가 있음
  - 특히, 100달러나 50달러 지폐의 경우 주유소나 일반 상점에서는 고액권이라며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
  - 1달러 동전의 경우 에콰도르에서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 해외 반출시 소지 금액이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반입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입액의 30% 벌금 부과
  - 또한, 에콰도르는 외환관리법에 따라 출국시 1인당 USD 1,410을 초과하는 외화 (모든 화폐 및 여행자수표 포함)에 대해서 5%의 외화유출세를 부과함
  - 출국 시 초과 금액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이후 발각되는 경우 최대 소지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전압

- 전기는 110V, 60Hz임



## □ 기후 및 시차

- 에콰도르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기후대가 있음
  - 해안지역(과야킬, 만타 등): 연중 25-31°C의 기온을 유지하며 12월-5월의 우기에는 습하고 더우며 나머지 기간은 건기임
  - 고산지역(키토, 쿠엔카 등):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하며 연중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춥고 인구밀집 지역의 기온은 13-18°C임
  - 아마존지역(테나 등): 대체로 습기와 비가 많고 기온은 23-26°C를 유지하며, 10월~12월 중에는 건기임
  - 갈라파고스지역(산타크루즈섬, 이사벨라섬 등): 23-32°C의 건조한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25°C임
- 특히, 고산지역(키토, 쿠엔카 등) 방문 시 만일을 대비해 일반약국이나 공항 약국에서 미리 고산병약 3종을 준비해 가는 것을 추천함
  - 미구비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복용 가능
- 의복
  - 고산 지역: 따뜻한 의상이 필요하며, 야간에는 두텁지 않은 코트가 좋음(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
  - 해안 지역: 해안지역, 갈라파고스, 아마존 지역은 모두 가벼운 옷차림이 적합, 여름 옷으로 준비하되 냉방이 강하여 가벼운 외투도 필요함
-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

## □ 과야킬 내 위험지역 및 안전지역

- 과야킬(Guayaquil)시 및 두란(Durán)주
  - 2023년 자료에 따르면 두란에는 인구 10만명당 84.56건의 폭력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과야킬은 67.97건으로 그 뒤를 이음
  - 이 두 지역은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폭력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 10위권 안에 위치함
  - 특히, 누에바 프로스페리나(Nueva Prosperina) 지역이 2022년 폭력 살인사건 253건, 2023년 515건으로 과야킬 시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힘
-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는 과야킬 중심부에 위치한 말레콘(Malecon), 센트로(Zona del Centro Historico), 과야스강 옆에 위치한 푸에르토 산타아나(Puerto Santa Ana), 북쪽에 위치한 우르데사(Urdesa)이며 특히, 과야킬 동쪽에 위치한 삼보론돈(Samborondon)은 부유층들이 주로 거주하며 쇼핑센터, 음식점, 술집 등이 밀집되어 있고 범죄 발생율이 낮은 지역임

**□ 전염병 및 예방접종**

- 2025년 5월 기준 에콰도르 내 백일해(백일기침, Tosferina) 확진 사례 증가
  - 에콰도르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5일부터 60일간 확산과 피해가 심각한 4개주(피친차(키토 포함), 과야스(과야킬 포함), 마나비, 산토도밍고) 내 모든 교육기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 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성인은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백일해 관련 정보>

개요 및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테리아(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li> <li>○ 초기에는 콧물, 미열, 마른기침(감기와 유사)이 나다가 악화 시 심한 기침, 발작, 호흡곤란으로 영유아의 경우 폐렴, 경련, 뇌손상 위험</li> </ul>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이 잦은 성인도 추가 접종 권장</li> <li>○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학교,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li> <li>○ 위생관리: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팔꿈치 안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릴 것.</li> </ul>

자료: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 2025년 5월 12일부터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에서 에콰도르로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했으며 조치 종료 시점은 미정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에 최근 10일 이상 체류했던 사람(에콰도르 국민, 외국인 모두 포함)은 에콰도르행 항공기 탑승 시 또는 에콰도르 입국 시(육로, 해상, 항공편 입국 모두 해당) 적용
  - 에콰도르 입국일 최소 10일 이전(접종 후 면역 항체 생성 기간 감안)에 접종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거나 에콰도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 입국 이후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수쿰비오스, 오레야나, 나포, 파스타사, 모로나 산티아고, 사모라 친치페 등) 방문 시에도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지참을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 □ 주요 관광지

- La Mitad del Mundo: 적도탑
 

1736~42년간 지구의 모양을 연구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온 프랑스 측지단의 적도 발견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화산석으로 만든 30m 높이의 피라미드형 기념탑임.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잉카시대 이전부터 적도를 Inti Nan(태양의 길)이라 칭하며 지기가 총만한 곳으로 약초재배 및 휴양지로 삼았음



- El Panecillo(엘 빠네시쵸) 언덕
  - 언제부터인가 3,000m대 언덕 위에 태양의 신전이 있었으나 16세기 초 Quito 왕국의 마지막 장군 Ruminahui가 잉카와의 전쟁 동안 파괴했음
  - 현재는 스페인 조각가 Agustin이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에콰도르 식민지파 조각가 Bernardo de Legarda의 Virgen de Quito를 모델로 1955년 디자인한

7,000조각 이상의 청동, 알루미늄, 주석, 철 등으로 구성된 키토 성모상(높이 31.5m)이 도시를 수호하고 있음



○ Centro Histórico(키토 역사 중심 지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에는 대통령궁(Palacio Presidencial), 독립광장(Plaza de la Independencia), San Francisco 성당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볼 수 있음
- 대통령궁은 궁전을 건설한 대통령의 성을 따라 Carondelet 궁이라고도 함
- 궁전 맞은편에는 아마존강 발견 기념벽이 있으며, 독립광장에는 에콰도르 독립 100주년 기념비가 있음



○ San Francisco 성당(수도원)

- 남미지역에 밀재배법을 도입한 San Francisco사제가 스페인의 Palacio Escorial 성당을 모방, 1534년부터 건축한 남미 최고의 성당임
- 현재의 성당은 지진에 의한 건물 파괴로 당초의 건축 모습과는 건축양식 등이 차이가 있음
- 성당 내부의 황금색 계단, 식민지 시대의 조각과 그림들이 걸작이며, 특히 화가 Legarda의 은날개를 단 키토의 성모마리아(La Virgen de Quito) 그림이

유명함



○ Fundacion Guayasamin: 과야사민 박물관

1919년 키토 태생의 중남미의 대표적 화가인 Oswaldo Guayasamin 개인 미술관으로 자신의 작품, 보석, 민예품, 프레 콜롬비아 및 스페인 식민시대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음



○ Museo del Banco Central: 중앙은행 인류고고학 박물관

- 잉카시대 이전과 잉카시대(BC4000-AD1533까지)의 유물과 함께 스페인 식민 시대 가구, 그림 등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잉카시대 도자기와 금제가면 등이 볼만함

○ La Compania 성당

- 17세기 초에 건축된 예수회 성당으로 바로코식의 건축양식과 내부 장식이 일품이며 키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임  
- 1645년 서거한 에콰도르 최초의 성인 Mariana de Jesus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으며 금세 초에 일어난 여러가지 기적과 관계되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Dolorosa del Colegio 성모마리아상이 모셔져 있음



## VII. 현지 주요 연락처 및 무역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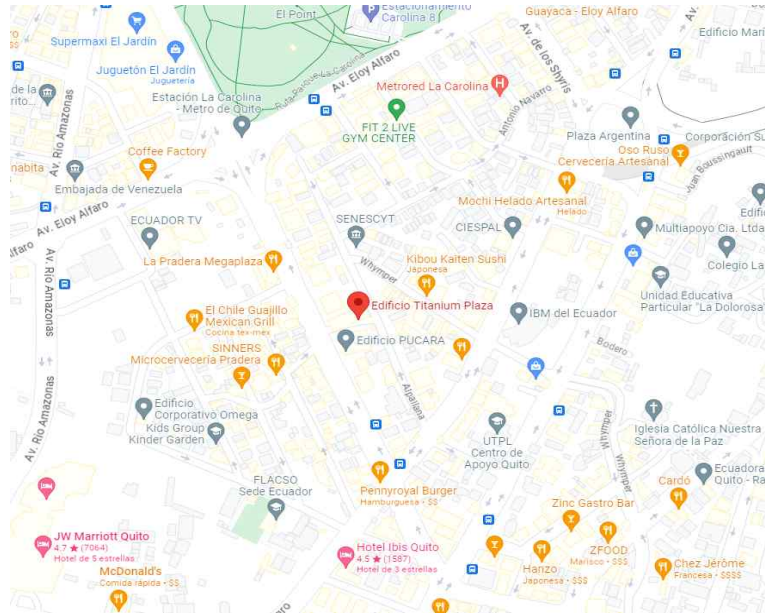
### □ 현지 주요 연락처

통합 긴급 신고 (ECU 911)	911 경찰, 소방서, 응급실 등 각 기관 연결 가능	
경찰서	키토 : 02-394-4040 과야킬 : 04-229-0545 갈라파고스(산타크루즈) : 05-252-6401	
외국인 전용병원	Quito	Metropolitano : 02-399-8000 Pichincha : 02-299-8700 Vozandes : 02-400-7100
	Guayaquil	Hospital Guayaquil : 04-284-4587

### □ 무역관 위치안내 및 전화번호

- 주 소 : Av. Martin Carrion E7-61 y Av. Republica, Edif. Titanium Plaza 201-202. Quito, Ecuador
- 전화번호 : 593) 2-450-4002, 4018, 4024

## □ 무역관 약도



## □ 공항에서 오는 법

- (택시) 키토국제공항에는 키토무역관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공항택시나 Uber 사용가능함. 택시 승차 후 에버뉴. 마르틴 까리온(Martin Carrion) y 에버뉴. 리퍼블리카(Republica)로 주소를 말하면 됨. 택시요금은 \$30 수준
- (공항버스) 키토국제공항에서 공항버스(US\$ 8)를 타면 구공항에 도착해서 택시 승차 후 에버뉴. 마르틴 까리온(Martin Carrion) y 에버뉴. 리퍼블리카(Republica)로 주소를 말하면 대부분 기사들이 아는 곳이고, 택시요금은 \$5 수준임.

## □ 주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Av. Amazonas y Union de Periodistas Edificio Eurocenter, Piso 4, Quito, Ecuador
- 대표 E-mail : ecuador@mofa.go.kr
- 대표 전화 : 593) 2-352-0866/ 0874~6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